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 contents

❁ 9월 교육 내용 .....	04
❁ 9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07
어린이 QT God's Time .....	08
❁ 9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19
어린이 QT God's Time .....	20
❁ 9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31
어린이 QT God's Time .....	32
❁ 9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43
어린이 QT God's Time .....	44
❁ 9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55
어린이 QT God's Time .....	56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65
❁ 위드 포토 .....	66
❁ 9월 추천도서 .....	68
❁ 9월 위드스티커 .....	69
❁ 9월 교육활동지 .....	70





## 암송 구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7)

♥첫째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7)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요.

♥둘째주♥  
“여리고 정복”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여호수아 6: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셋째주♥  
“아이 성”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7:13)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넷째주♥  
“기브온의 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여호수아 10:14)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다섯째주♥  
“준비한 갈렙”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여호수아 14:12)  
\*하나님을 믿고 준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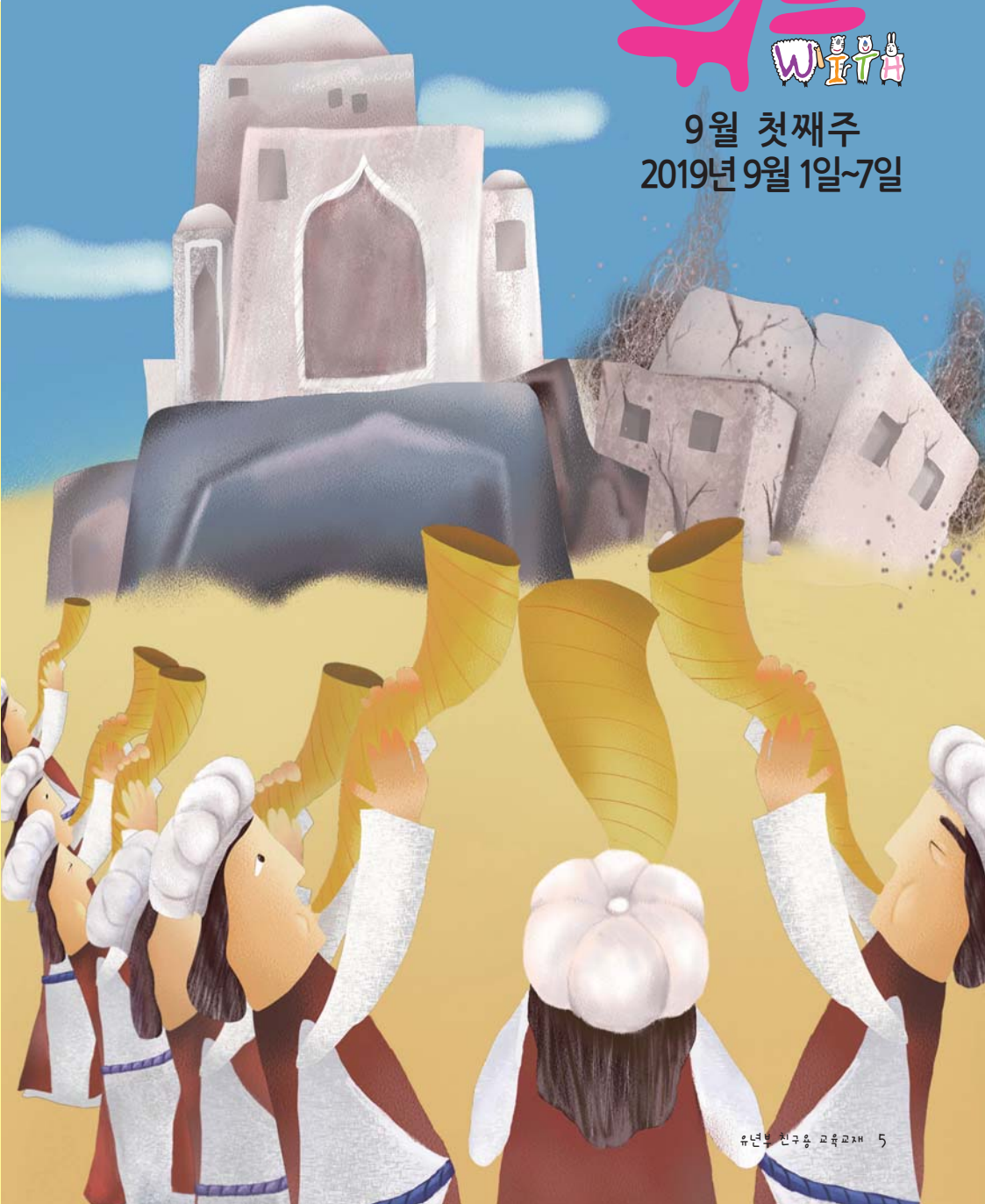
## 실천 내용

1. 이번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보기
2.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기

# 위드

WITU

9월 첫째 주  
2019년 9월 1일~7일



# Memory Time



## 하나님의 말씀으로

### 첫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7

♥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말씀으로 ▷ 여호수아 1:1-9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 1:1, 출 24:13)

모세의 ○○○ ○의 아들, 모세의 ○○

②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요? (7절)

모세가 네게 명령한 ○○

### ★ 교육활동 - “말씀 두루마리”

① 오늘의 말씀을 색지에 붙이고 색연필과 싸인펜으로 꾸며 보세요.

② 다 꾸미고 나면 서로에게 보여주며 말씀을 크게 읽어요.

③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리본으로 묶어 말씀 두루마리를 완성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오직강하고극히담대하여나의종모세가네게명령한그율법을다지켜  
행하고우로나좌로나치우치지말라그리하면어디로가든지행통하리니”

▷여호수아 1:7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1-9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지도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용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거나, 전쟁을 위한 전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는 아주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애굽에서도, 그리고 힘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두려운 상황을 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Q 1 나에게두렵고힘든상황은무엇이있나요?

Pray 우리가족이언제나말씀과함께하며담대히나아가게해주세요.

# GOD'S TIME 1

## 첫째주

날짜: 2019.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사도행전 19:1-11 “성령의 은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2.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시다" 하고 대답하니
4.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5.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9.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10.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11.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강론: 교리를 설명하여  
 신자를 가르침.
- 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 비상한: 평범하지 않고  
 뛰어난.



with  
관찰

1.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했나요? (2절)

“여러분은   때에,    받았습니까?”

2. 에베소의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5절)

그들은 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with  
생각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즐겁고 만족스럽게 새로운 임무에 몰두했어요. 아볼로 같은 유능한 사역자가 고린도에서 훌륭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몇몇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밖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해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어요.

with  
결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본 이유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 고민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19:21-29 “가장 중요한 복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1. 이런 일이 있는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23.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24.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25.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26.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27.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28.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29.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직공 : 자기 손기술로 물건  
 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종사하다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다.

with  
관찰

1.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24절)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만들었다.

2. 바울이 하고 다닌 말 중에 어떤 말이 데메드리오를 격분하게 만들었나요? (26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말했다.

with  
생각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것은 은장이 데메드리오로 인한 것이었어요. 은장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의 돈이 사라질 것이 두려웠던 데메드리오와 다른 사람들은 시위 하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왔어요. 그들은 바울과 동행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인해 데메드리오와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돈이 복음보다 중요했던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았어요. 때로는 우리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경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0:1-12 “**긍휼함으로 기쁨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2. 바울은 그 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3.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바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4. 그 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뢰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5.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6.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7. 주간의 첫 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8.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9.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삼 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11.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12.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음모 :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

소란 : 시끄럽고 어수선했음.

with  
관찰

1.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9절)

몹시 졸다가 삼 층에서

2. 이것을 본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10절)

그에게  끌어안았다.

with  
생각

바울은 집회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에 앉아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어요. 바울은 설교를 듣지 않고 졸았던 그 청년을 비난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엎드려 그를 끌어안았어요. 진지하게 기도하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청년 유두고에 대한 극진한 동정심과 애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청년처럼 불행한 사고를 당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동정심은 살아난 청년의 칭찬과 전체 사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헌함으로 사회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변 사람들에게 공헌을 베풀며 기쁨이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0:17-27 “복음을 증언하는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18.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19.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20.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21.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22.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23.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 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25.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7.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 말씀을 3번  
 •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 **음모** :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 **경륜** :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with  
관찰

1. 바울은 어떻게만 하면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나요? (24절)  
하나님의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2.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왜 책임이 없다고 말하나요? (27절)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을 전해 주었기 때문.

with  
생각

바울은 자신에게 폭풍이 닥칠 것을 대략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그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그는 다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바울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해요. 그리고 매 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이 땅에서의 어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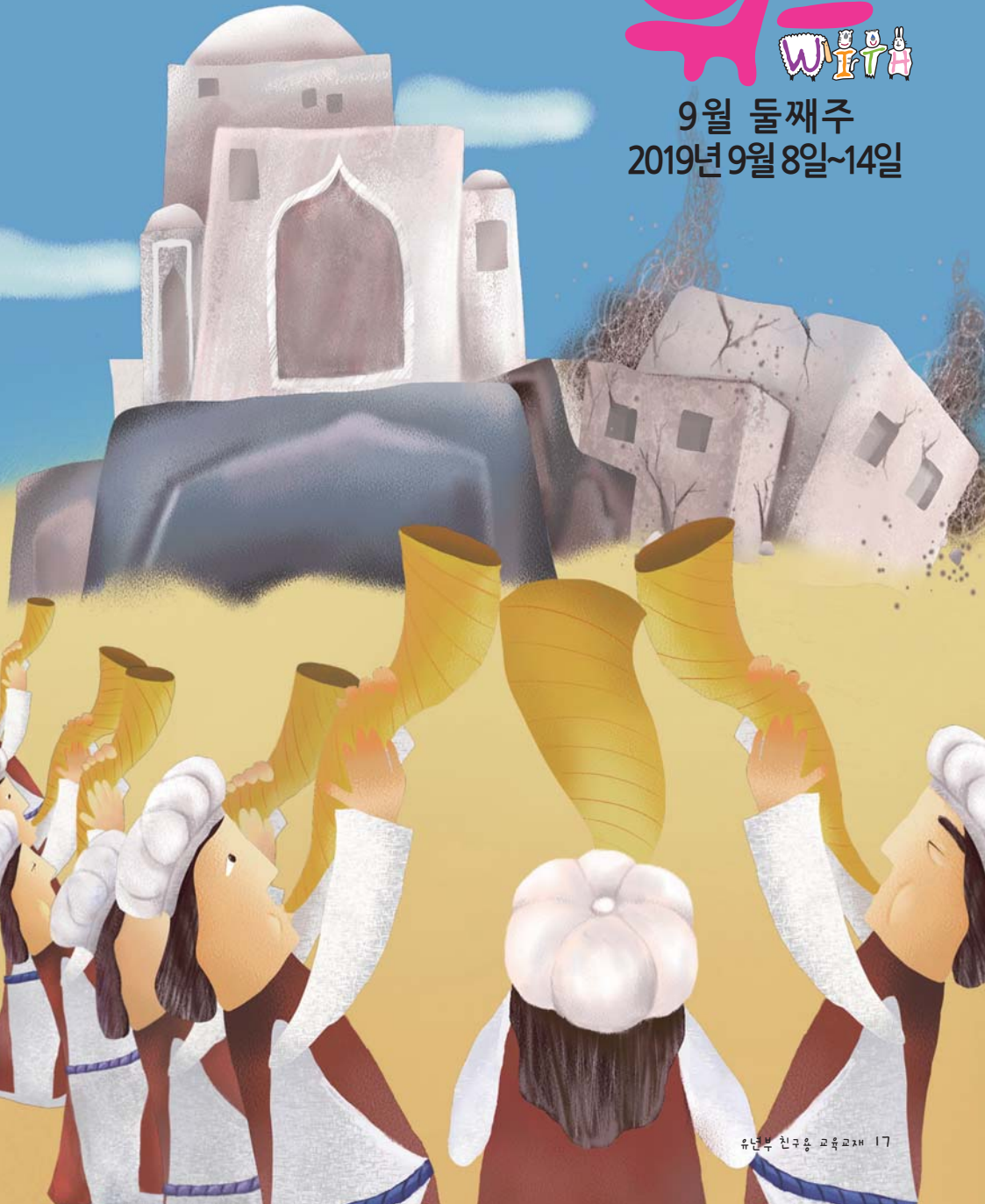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7 -





# 유트 WITU

9월 둘째주  
2019년 9월 8일~14일



# Memory Time



## 여리고 정복

### 둘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6:2

♥ 오늘의 주제 : 여리고 정복 ▷여호수아 6:1-21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2-5절, 16절)

매일  번씩  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번 돌며,

번째에 제사장들이   을 불 때,

백성들은    로 외쳐라

### ★ 교육활동 - “믿음의 나팔”

- ① 워드 활동지에 인쇄된 '믿음의 나팔'을 오려 풀을 붙여 나팔을 만들어요.
- ② 종이컵을 쌓아 여리고 성을 만든 후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해요.
- ③ 일곱째 날 일곱 바퀴째 나팔을 불며 외친 후에 성을 무너뜨리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6: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여리고 정복 ▷여호수아 6:1-21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제사장인 언약궤 뒤를 따르며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했지요.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이 방법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며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리고 성을 돌던 일곱째 날 그 성은 와르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어요. 만약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승리 또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리하게 느껴지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Q 1 우리 가족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나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 보세요.



Pray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1:1-16 “아가보의 예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 이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 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임자**: 물건을 소유한 사람

**만류**: 붙들고 못하게 말림

**결박**: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음



with  
관찰

1.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예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 7 B

2. 예언자는 누구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묶으며 예언하였나요? (11절)

B ○

with  
생각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여정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은 이와 같이 손과 발이 묶여 이방인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며 염려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with  
결심

우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전하기 전에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자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마음 속에 두려운 것을 떨쳐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따르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 둘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1:17-26 “다른 생각을 존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말이 이야기하였다.
-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생략)
-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풍속 :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따위를 이르는 말

배척 :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

정결 :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with  
관찰

1.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18절)

○ 7 B

2. 바울에 관해 퍼진 소문은 무엇인가요? (21절)

사람에게   도 주지 말고

사람의   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

with  
생각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있던 장로들은 바울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하지만 바울에 관하여 퍼져있는 안 좋은 소문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평소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하여 비판했어요.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닌, 율법을 자신들의 보여짐에 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부탁은 바울이 들어주기에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부탁대로 정결 예식을 하며 유대인들을 안심시켰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다보면 이웃과 다른 의견으로 인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의견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존중해 주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 GOD'S TIME 3 들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사도행전 21:27-22:29 **“당당히 선포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9.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생략)
3.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략)
6.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7.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하느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하셨습니다.”  
(생략)
17.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18.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하셨습니다.  
(생략)
21.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하셨습니다.”
22.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 버려라. 살려 두면 안 된다”하고 소리를 질렀다.
23. 그리고 그들을 고향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문하:**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아래

**핍박:** 바싹 쪼어서 몹시 괴롭게 굶

**황홀경:** 한 가지 사물에 마음이나 시선이 혹하여 달뜬 경지나 지경



with  
관찰

1.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나요? (3절)

○ □ 사람

2.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21절)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with  
생각

유대인들에게 잡혀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보내셨다고 당당히 선포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폭동이 일어났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나 비전을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아심을 기억하며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막을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선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비전을 당당히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2:30-23:11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3.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생략)

9.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10.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11.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회칠한 벽** :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체하지만 속은 썩고 부패한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병영** :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곳



with  
관찰

1.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3절)

ㅎ ㅅ ㅎ ㅂ

2.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11절)

“   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with  
생각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하여 토론하였어요. 어떤 날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 사이의 싸움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을뻔도 하였어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with  
결심

바울은 한번이 아닌, 수십, 수백 번의 논쟁으로 지쳐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여 지지 않는 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힘과 용기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더욱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용기와 위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7 -



# 위드

WITU

9월 셋째주  
2019년 9월 15일~21일



# Memory Time



아이 성

셋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7:

♥ **오늘의 주제** : 아이 성 ▷여호수아 7:1-15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어요.

## ★ 말씀 나눔

① 아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1절, 11절, 6장18절)

이스라엘이 ○○하였기 때문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고, ○○○○하며 속였기 때문에)

② 아이 성 전투에서 지자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6절)

여호수아가 ○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의 ○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다.

## ★ 교육활동 - “나의 죄를 고백해요”

아간과 같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위드 활동지에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 여호수아 7:13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아이 성 ▶ 여호수아 7:1-15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으로 '아이'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에 따라 부르다 보니 세라 가문의 삽디 가족 중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어요. 아간은 탐이 나서 훔친 물건들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아간은 그 죄로 인해 죽고 말았고, 훔친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어요.

아간은 아마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탐나는 물건을 훔쳐 집에 숨겨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똑똑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요.



Pray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주세요.

#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3:12-35 “바울을 죽이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9.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 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나?"
20.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1.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 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23.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아홉 시에 가이 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라."
24.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25.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26.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27.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28.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29.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 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천부장 : 로마 군대의 조직 가운데 1,000명으로 조직된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

매복 :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with  
관찰

1.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은 몇 명이었나요? (21절)

명

2.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해준 이유는? (27절)

사람이기 때문에

with  
생각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팔기는커녕 도리어 힘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 중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들의 계략을 천부장 글라우시오 루디아에게 알렸고,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줬고, 총독 벨릭스도 바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 방법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with  
결심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힘 있게 전파하였을 때 천부장과 총독을 통해 박해하던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만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자녀가 될게요. 그래서 그로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노력할게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4:1-9 “고소당한 바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2.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4.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6.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7. (없음)
8.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9. 그러자 유대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고소하다** : 고하여 하소연하다

**도당** : 불순한 사람의 무리



with  
관찰

1.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1절)

대제사장     몇몇   들,  
 변호사

2.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무엇과 같은 자라고 말하나요? (5절)

with  
생각

40여명의 유대인들뿐 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몇몇 장로들이 변호사와 함께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어요.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는 자신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모든 것이 총독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부를 해요. 아부가 끝나자마자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소란을 일으키며, 불법 무리의 우두머리이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짓말로 고소를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참하여 이 말이 옳다고 거짓주장을 했어요.

with  
결심

군중소란죄, 성전모독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억울하고도 분한 누명을 쓰게 된 바울.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 지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의 자녀로 살며 겪는 억울한 일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4:10-23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0. 그 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11.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12.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3.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14.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15.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생략)
22.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23.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양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with  
관찰

1.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과 바울이 동시에 소망하고 있는 것은? (15절)

바울

2.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나요? (16절)

거리낌 없는 ○ 人

with  
생각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해주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에 전혀 잘못이 없음을 밝혔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고소했던 그 “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고소가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시간적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예요. 바울의 자기변호로 인해 재판의 흐름은 바울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발이 정확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을 믿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어요.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4:24-25:12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8.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9.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10.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11.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12. 그 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 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환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with  
관찰

1. 벨릭스에 이어 총독이 된 사람의 이름은? (6절)

2.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베스도 역시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9절)

유대인들의 을 사기 위해서

with  
생각

벨릭스에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재판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전히 대지 못하고 있지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심문받겠는지를 묻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며 가이사(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했어요.

with  
결심

베스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했어요. 크고 강한 권력이 베스도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 힘을 올바른 일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복음전파라는 옳은 일에 사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베스도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7 -





# 위드

WITU

9월 넷째주  
2019년 9월 22일~28일



# Memory Time



## 기브온의 궤

### 넷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 여호수아 10:14

♥ **오늘의 주제** : 기브온의 궤 ▷ 여호수아 9:1-10:43

♥ **오늘의 포인트** :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나요?  
말씀을 읽고 나의 말로 대답해 봅시다. (4-6절)

②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8)

“그들을 ○○○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 **교육활동 - “색칠하기”**

- ① 기브온 족속이 궤를 내어 여호수아에게 비는 그림이에요. 색칠해 봅시다.
- ②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 여호수아 10:14

♥ 오늘의 포인트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기브온의 꾀 ▶ 여호수아 9:1-10:43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마다 많은 이방 나라를 만나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이런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지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 자신들이 불쌍하게 보이게끔 거짓으로 꾸민 다음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부탁하며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불쌍해 보여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뜻과 지혜로 판단해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마다 승리하도록 지켜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잊고, 나의 뜻대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거예요.



Q 1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행동해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Pray 나의 판단과 뜻으로 행동하며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 넷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5:13-27 “올곧은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14.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판결을 청하였습니다.
16.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 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7.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18.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20.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1.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관례** : 전부터 내려오던 관습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사람

**변호** : 남의 이익을 위해 감싸서 도와줌

**심리** :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서 처리함

with  
관찰

1.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15절)

“...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하여,

을 청하였습니다.”

2.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9절)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와

또   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고  
주장하였습니다”

with  
생각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 베스도에게 재판 받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 며칠 후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찾아갔어요.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은 바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베스도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주장했다 뿐, 그 외에 바울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베스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베스도는 옳은 사람이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재판 받게 되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죄인이라 이야기했지만, 베스도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옳은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옳은 사람으로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잘 구별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도록 노력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래요.  
나의 기도 :

# GOD'S TIME 2

## 넷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6:1-23 “내가 만난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2. 한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14.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돌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애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5.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16. 자, 일어나서, 발을 신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 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7.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 "그러므로 아그립바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20.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21.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위임 : 어떤 일에 대한 책임

환상 :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현상

with  
관찰

1.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때),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어디로 갔나요? (12절)

(다메섹)

2.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전했나요? (20절)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고

하나님께서로   와서,   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with  
생각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돌이킴, 회개) 사건을 26장에서 다시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예수님께서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게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 GOD'S TIME 3

## 넷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6:24-32 “나와 같이 되기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4.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25.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26.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7. 아그립바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29.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설복 : 알아듣도록 말하여  
받아들이도록 함

결박 :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음, 구속함



with  
관찰

1.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24절)

“...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이

너를    하였구나...”

2.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왕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28-29절)

“...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with  
생각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변호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이 아니냐며 그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아그립바를 비롯한 사람들을 향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며 담대히 외쳤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되기로 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른 친구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해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 GOD'S TIME 4

## 넷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7:1-25 “하나님만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
15.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16.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 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17.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 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18.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19.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 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21.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23.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서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5.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체념** : 희망을 버리고 단념함(생각 그만 함)  
 (포기함)

**거룻배** : 돛이 없는 작은 배

with  
관찰

1.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가던 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 떠밀려갔는데, 그들은 어떤 폭풍을 만났나요? (14-15절)

로

2. 바울은 폭풍에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에게 약속 하셨다고 전했나요? (22-24절)

“바울아,    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항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을 너에게   주셨다”

with  
생각

바울과 일행들은 로마를 향해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배는 폭풍에 휘말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짐과 배에 필요한 장비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불었고,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선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ith  
결심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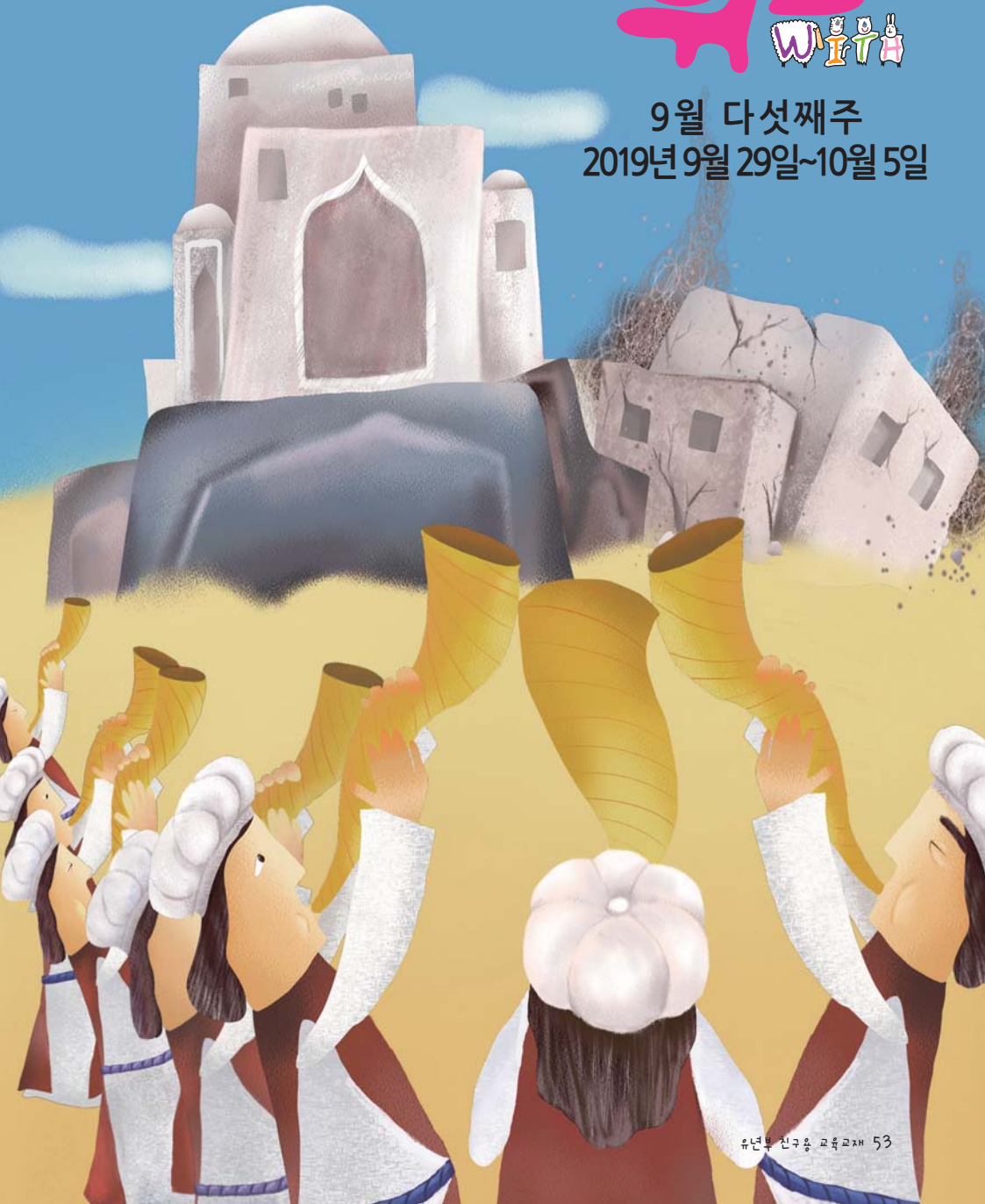
나의 기도 : \_\_\_\_\_  
\_\_\_\_\_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7 -





9월 다섯째 주  
2019년 9월 29일~10월 5일



# Memory Time



## 준비한 갈렙

다섯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하니” ▷여호수아 14:12

♥ 성경이야기 : 준비한 갈렙 ▷여호수아 14:6-15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을 믿고 준비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갈렙은 몇 살때 정탐을 나갔고, 현재는 몇 살인가요? (7절, 10절)

○○살, ○○살

②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 ○○○이라

★ 교육 활동 - “인도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 ① 한 친구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다른 친구는 시작할 때에만 말로 친구를 인도해요.
- ② 말하는 친구는 정해진 길로 눈을 가린 친구를 잘 인도해 주어요.
- ③ 눈을 가린 친구는 자신을 인도하는 친구의 말을 믿고 이동해 도착해요.
- ④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을 기억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12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을 믿고 준비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준비한 갈렙 ▷여호수아 14:6-15

오늘 본문에서 45년전 가나안 정탐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그중에 10명이 그들은 너무 크고 강하다.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길 수 있다고 하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애굽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은 것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었어요. 가나안을 차근차근 정복하고 있을 때 헤브론지역을 앞에 두고 갈렙이 사람들 앞에 나와 이야기하였어요.

모세가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 땅에 강한 자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낸 날처럼 강건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갈렙은 45년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야! 그때 나도 전쟁에 나가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갈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몸을 계속 단련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오면 자신이 싸울수 있도록 말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갈렙은 45년 동안을 준비해온 것이예요. 마침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헤브론을 기점으로 받게 되요.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라요.



토론하기

Q 1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Pray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7:26-44 “바울의 지혜로운 권면”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7.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28.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 보니, 스무 길이었다. 좀더 가서 재니, 열다섯 길이었다.
29.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달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30.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달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31.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32.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33.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즐기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34.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36.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37.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이백일흔여섯 명이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암초**: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

**고물**: 배의 뒤쪽 부분

**거룻배**: 돛 없는 작은 배



with  
관찰

1.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바울의 일행들은 어느 바다에 떠밀려 다녔나요?  
(27절)

○ 드 리 ○

2. 바울의 권면에 용기를 얻은 배에 있던 사람의 수는 모두 몇 명이었나요?  
(37절)

			로
--	--	--	---

with  
생각

그레데로부터 떠밀려 간지 2주일 후 그들은 멜리데 섬 근처에 이르렀어요. 선원들이 도망치려 하자 바울이 지혜롭게 그들을 권면하였어요. 바울은 배에 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폭풍우를 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다섯째주 TIME 2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8:1-10 “보블리오와의 대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8.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9.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 와서 고침을 받았다.
10.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극진한**: 정성을 다하다.

with  
관찰

1.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멜리데 섬의 추장 이름은 무엇인가요? (7절)

ㅂ ㅂ ㄹ ㅅ

2.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였나요? (8절)

“바울은 들어가서   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게 해주었다.”

with  
생각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머물면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보블리오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바울은 이 집에 머물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바울은 그들도 고쳐주었어요.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주었어요.

with  
결심

보블리오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절히 3일 동안 바울의 일행들을 대접해주었어요. 그런 그의 친절로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었고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허한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해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낮은 우리를 공허히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공허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항상 공허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다섯째주 TIME 3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8:11-15 “로마에 도착한 바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12.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13. 그 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14.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레**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15.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이레** : 일곱 날



with  
관찰

1. 바울이 보디올에서 이레 동안 머물고 나서 어느 곳으로 갔나요? (14절)

- ① 멜리데 ② 수라구사 ③ 레기온 ④ 로마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를  
드리고,   를 얻었다.” (15절)

with  
생각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을 적용해서 선언하였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어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전도 하기가 쑥스럽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했던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도행전 28:16-31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3.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숙내를 터놓았다.
24.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25.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흠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 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26.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27.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29. (없음)
30.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31.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바울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말했나요?  
(25절)

- ①엘리아    ②예레미야    ③이사야    ④요나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를 전하고,

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31절)

with  
생각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을 적용해서 선언하였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 하였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어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전도하기가 쑥스럽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했던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나의 기도 :

---



---

# Morning Time

##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 말씀 <잠언 4장20-27절, 새번역>

20.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21.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22.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23.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24.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 버리고,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25.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26.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피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27.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끊어 버려라.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딸/아들 OO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OO이/가 되게해주세요. 혹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과도 같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OO와/과 옆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욱더 깊이 쌓아갈 수 있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말씀 &lt;시편 121편, 새번역&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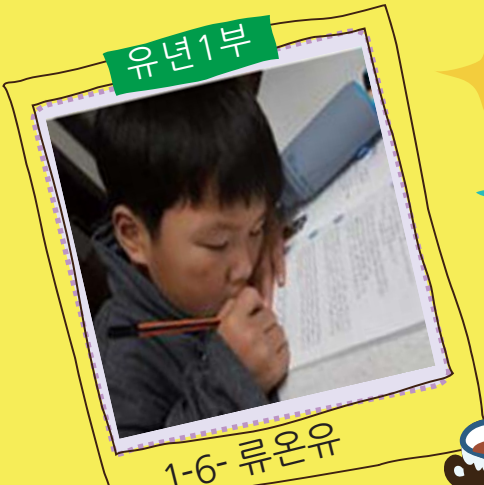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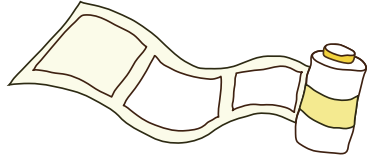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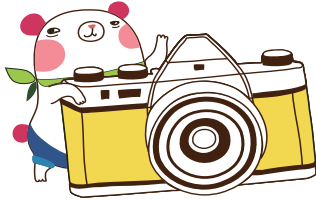
1.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에서 온다.
3.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6.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7.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8. 주님께서,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와/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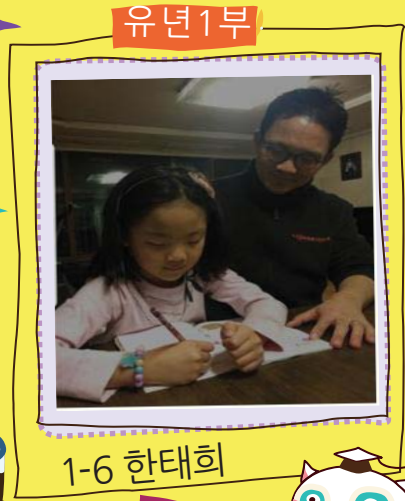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게해주세요. 우리OO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유년부 PHOTO



유년1부

1-6- 류온유



유년1부

1-6 한태희



유년1부

찬양 2-2 박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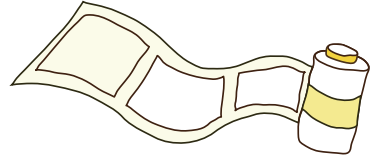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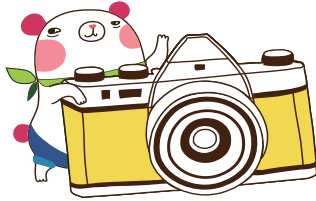


유년2부

2-1 이시우



# 유년부 PHOTO



유년2부

2-2 김민주



유년2부

2-2 임상운



유년2부

2-4 이예은



유년2부

2-9 강현아



9월

제목: 가방 들어주는 아이

글/ 고정욱

그림 / 백남원

출판사 / 사계절



이 책은 장애아뿐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이 겪을 수도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저학년 창작동화입니다. 저자 자신도 소아마비 1급 장애인으로 작품에서 주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책에서 역시 장애를 소재로 하지만, 이번에는 ‘장애인의 친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애 때문에 아이들에게 따돌림받는 영택이와 그런 영택이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놀림당하는 석우,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과 그로 인한 석우의 갈등이 작품의 주된 축을 이룹니다.

여기에 따뜻한 그림이 어우러져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석우가 어느 순간 영택이를 더 이상 낯설게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 둘 사이에 진짜 우정이 생겨난 것처럼,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는 때에야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작품입니다.

이 책을 통해 유년부 친구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9월 STICKER

Bible study!

유년( )부, ( )학년, (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도나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7)









하나님!

---

---

---

---

---

---

---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